

10/6 (수 6:1-7)

우제윤

제목: 하나님의 전쟁

1) 하나님의 황당한 지시

2) 의심되는 가운데에서

**한줄요약: 하나님의 계획에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참고: WBC주석, NAC주석, 메인아이디어주석

신앙생활을 하다보면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나에게 생각지 않았던 비전을 주기도 하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로 섬기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생각지 않은 것에 대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을 할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다. 나를 쓰신다 하는 기대감이 있기도 하지만, 그 시간은 잠시고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비전이 나에게 너무 커서 의심이 들고는 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생각이 들고는 할까요? 아마 비전을 받았을 때 너무나 큰 비전이라고 느껴서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황당한 요구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과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그 땅을 정복하는 것. 둘째는 그 땅에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크고 강력해서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입니다. 저 요새와 같은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기와 병사 그리고 뛰어난 전술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은 침묵으로 성 주위를 돌고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황당한 지시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황당한 지시 속에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들이 소유한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부터 가나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훈련받아 온 것은 하나님의 의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계획이 있고 이미 준비하셨고 그것을 너희를 통해 이루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 결과로 징계하시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해서 인간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세상의 논리로 말이 되지 않은 것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오늘 여리고 성도 세상의 논리로 말은 되지 않았습디다. 그러나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통해 침묵 속에서 돌라고 명령하신 것에 대해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오늘 또 행진을 하라고? 침묵하라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하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1바퀴를 돌때마다 금이라고 가면 진척도를 알 수 있어서 좋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날 큰 소리를 내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전쟁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로 부른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세상논리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황당한 요구에 의심을 갖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 알려주셨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13 (수 14:6-15)

우제윤

제목: 거인보다 큰 사람

1) 2인자 갈렙

2) 전심으로 온 믿음

**한줄요약: 어떤 장애에도 온전히 전심으로 가는 신앙**

참고: WBC주석, 메인아이디어주석, NAC주석

세상에는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티비에서 보는 경쟁프로들만 보더라도 그들이 살아 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피 땀 눈물을 흘렸을지 절실히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프로를 마치고 1등은 아니더라도 2등만 해도 너무나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그 프로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사람들은 1등은 기억하지만 2등은 기억되지 못하고 잊혀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거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갈렙’도 비슷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찬성한 2명의 인물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세워졌지만, 갈렙은 어느순간 잊혀진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나안 점령에 찬성을 했지만 과반수의 반대에 이스라엘은 광야를 돌게 되었습니다. 비록 긴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던 중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그 땅을 나눌 수 있도록 계획중에 있었습니다. 사실, 갈렙은 야곱의 후손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땅을 분배받을 수 있는 약속의 계열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기에 땅 분배를 받을 자격이 이미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한 약속에 근거하여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며 85년이라는 긴 시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당시의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게 된 땅은 “헤브론”인데 거기는 열두정탐꾼을 두렵게 하였던 거인들이 아직 차지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에서의 후손이고 2인자였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있었고 85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거인이 살고 있는 땅을 정복하는데에 직접 나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갈렙은 이름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가 2인자로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광야에 있을 때에도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믿으며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심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어찌면 눈에 보이는 거인보다도 더 큰 믿음이 아니었을까요?

오늘의 갈렙을 보면서 우리도 어떤 장애가 있더라도 하나님께 늘 전심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10/20 (수 24:14-24)

우제윤

제목: 그만 섬기라

1) 이방신을 제거하라

2)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한줄요약: 자기계시를 통해 보여주신 그를 믿고 이제는 '그'만 섬기자**

참고: WBC주석, 메인아이디어주석, NAC주석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는 합니다. 믿는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라는 요소는 중요하게 작동해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녀들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실 때 성도는 어떠한 반응 보이는 것이 올바른 행동일까요? 그것은 내가 따르고 있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유일한 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초반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오셨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 되어져 왔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시내산에서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레위기에서 염소 우상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신명기에서 귀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조속의 신들을 추가로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신을 버린 적이 한번도 없었기에 거친 말로 백성들에게 우상들을 버리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15절에 이어서 백성들에게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하며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눈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방신들을 선택해라 그것이 아니라면 여호와를 선택하라고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는 백성이 받아들이고자 하는 약속의 결과에 대해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긴다면 하나님은 가장 풍성한 방법으로 사랑을 나타낼 것이지만 자기 백성이 자기를 거절하면 가혹한 심판으로 보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고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주만 섬기고 주만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시 눈을 돌려 다른 신을 쫓아가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잊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24장의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는 여정 속에 있는 약속, 성취, 은혜, 사랑, 심판 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만 섬기며 따라가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만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27 (삿 2:8-15)

우제윤

제목: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전수하라

1) 가르치는 것에 대한 중요성

2) 다음세대로 전수하는 신앙

**한줄요약: 부모는 내 자녀를 가르치고 전수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참고: WBC주석, 메인아이디어 주석, 엑포지멘터리 주석

1년동안 중요한 날들이 존재합니다. 여러 가지의 날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유독 더 신경 쓰고 있는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이 날은 전국의 모든 회사들이 출근시간이 변경되는 유일한 날이기도 하는 ‘수능의 날’입니다.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이 단 하루의 날을 위하여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며 실력을 닦아온 날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한국에서는 교육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교육 뿐만 아니라 사교육의 열풍도 엄청나고 각종 인강, 과외, 스터디 모임, 스터디 카페 등으로 교육에 대한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펼쳐진 일들을 서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까지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세대였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요? 이 사건은 마치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을 때의 일을 연상케 합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는 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일어난 새 왕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한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결국 “가르침과 전수”에 대한 부재였던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을 보면 모세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갈 후계자에 대해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만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나의 신앙을 굳세게 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서 끝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명기에서도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자녀에게로 나의세대에서 끝이 아니라 다음세대에게로 전수하고 넘겨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녀를 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